

名前:

최근에는 인터넷의 발전에 의해 종이
신문이나 잡지가 필요 없어졌다고 들
지만, 과연 그럴까요?
인터넷에서의 신문이나 잡지는 컴퓨터
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
있습니다. 또한 그저 기사를 읽고 끝나는
것이 아니라 그 기사를 읽은 다른
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알 수 있
는 장점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
리고 기사나 이미지 파일 등은 삭제하
지 않는 한 영구보존이 가능할 것입
니다.
하지만 인터넷은 그것을 사용하기 위
해서 컴퓨터와 전기가 필요합니다. 물론
요즘은 노트북이 있기 때문에 공간적
제한은 없어졌지만, 노트북이 인터넷에
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할 수 없게
됩니다. 그리고 만일 인터넷상의 기사나
이미지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다고 단
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. 한마디로 말

해서 이른바 공간적·시간적 제한이 있
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.
따라서 반드시 전자신문이나 전자잡지
가 좋다고 할 수도 없으며, 또 종이
신문이나 종이잡지가 반드시 좋다고 할
수 없을 것입니다. 아무리 인터넷이
편리하다고 하더라도, 아직 인터넷에 익숙
해지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, 산
데미 같이 넘쳐나는 정보들 속에서 놓치
고 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. 또한 반
대로 인터넷에만 너무 익숙해져버린 사
람도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.
그러므로 아직까지는 인터넷 신문·잡
지도 또 종이신문·잡지도 모두 필요하
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속도가
느린 종이 신문 대신에 인터넷 신문을
사용하거나, 공간적·시간적 문제가 있는
인터넷 신문 대신에 종이 신문을 사용
해준다면 문제를 덜 수 있을 것입
니다. 아직은 두 쪽 모두 사용해야 한
다. 고 생각합니다.

1800字